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 주 검 무



일시 : 1992 년 9 월 24 일

시간 : 11 시 4 분 ~ 11 시 29 분

장소 : 금 오 공 대 체 육 관

황 해 도

인사말

황해도 해주검무(海州劍舞) 민속공연에 즈음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는 수난과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강인한 호국정신으로 국권을 지켜온 한편 독창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얼을 되살려 우리 황해도의 향토혼과 정취가 가득히 담긴 해주검무(海州劍舞)가 한마당 민속축제인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민속예술은 한 민족의 생명의 원천을 반영하는 것이며 수많은 난국을 슬기와 용기로서 극복하여온 우리 조상들의 민족혼의 투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속예술을 전승하는 것은 우리의 지선(至善)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황해도에서는 분단과 단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봉산탈춤·강령탈춤·은율탈춤·대동굿·평산지정뒹기·소놀이굿·해서민요 등 유형 무형의 민속놀이를 보존 계승 함으로써 향토민속의 재현을 통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협동적 향토혼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실향의 한을 그동안 달래왔으며 이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향토문화를 계승하는 황해도 전통민속이 더욱 전승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민속 한마당 축제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족문화 진흥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해주검무재현을 위해 梁蘇云보존회장을 비롯한 출연자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중지를 모아 시대적 시대상의 변화는 있으나 전통문화의 원형은 변화나 변질은 있을 수 없으며 원형 그대로를 재현 보전하여 2·3세에게 올바르게 전승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역경을 딛고 9년여에 걸쳐 많은 힘을 기우려온 해주검무의 진가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열과 성을 다 해온 해주검무를 훌륭하게 재현시켜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고 아울러 해주검무가 황해도의 전통민속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문화재로 선정 되기를 기대하면서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92. 9.

황해도지사 방준필

격려사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故鄉이 잔인무도한 共産 적도들에 유린당한지도 어언 45년여가 되었습니다.

45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들의 記憶속에 아스라이 멀어져만가는 두고온 故鄉風物에 아쉬움만 가득할 뿐 뚜렷한 記錄도 별로 남아있지 못하고 실제 고향 民俗놀이에도 참가 演戲하던 선배들도 나이는 어쩔 수 없어 統一을 보지 못하고 恨을 품은채 한 두분씩 세상을 떠나 故鄉의 아름다운 民俗놀이 옛모습을 올바로 再演하는 분이 드물게 되어 마음 아프던 중에 우리 鄉土民俗의 發展을 위하여 平生을 바쳐오신 梁蘇云 女史(無形文化財 17號)께서 再演시킨 海州劍舞를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 公演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나없이 우리모두가 故鄉을 北에 두고 떠났던 失鄉民들이라 生活의 여유가 있으리오마는 故鄉民俗에 대한 사랑만은 한결같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鳳山탈춤」의 繼承발전에 진력해 오신 梁蘇云 女史께서 海州劍舞를 再演하여 그동안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그때마다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山紫水明하고 人心이 厚德하여 옛부터 많은 義人烈士를 배출하였고 8.15이후 2백만의 越南 실향민을 낸 우리 黃海道の 道廳所在地인 海州의 民俗이 再演된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옛고장의 名人들과 문하생들이 海州劍舞를 演戲하여 고향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後代들에게 알리는 일은 貴重한 일의 하나이며, 매우 뜻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公演은 우리들의 愛鄉心을 다지고 鄉土의 아름다운 傳統을 가다듬는 길ियो, 이 民族의 同質性 一體感을 여미어 겨레의 宿願인 平和 統一을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銘心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훌륭한 공연을 마련하신 梁蘇云 女史와 문하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며 今年에는 苦心한 보람이 열매를 맺어서 기필코 文化財指定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1992. 9.

황해도중앙도민회장 홍 성 철

海州劍舞 [민속무용] 해설

劍舞의 發生을 멀리 原始社會에서 狩獵舞踊으로 또는 巫俗儀式에서 遂邪舞踊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 추측되나 文獻的 기록으로 보면 「文獻備考」나 「東京雜記」에 三國時代 新羅사람들이 黃倡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黃倡의 얼굴을 모방한 탈을 쓰고 춤을 춘데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오랜 연륜을 가진 劍舞가 전승되어 오는 동안에 宮中樂을 관장하는 掌樂院과 유대를 맺고 있는 地方官衙의 教坊界까지 전파되어 오늘에 와서는 晋州地方, 統營地方, 그리고 黃海道 海州地方에서 전해지고 있다.

海州劍舞의 特徵은 4人 또는 8人舞이고 進行順序는 처음에 2人씩 마주보고 추는 2例隊舞, 방석돌이(圓周上廻舞)와 1例隊舞로 되어 있다. 주된 춤사위는 「손춤」인 경우 「부채사위」 「한팔당길사위」 「엷을사위」 「도는사위」 「얇은 사위」 「엎드려 땅짚기」 「양손땅짚고 어르기」 「戰笠 잡고 손돌리기」 등이며, 「칼춤」인 경우 「옆사위」 「빨사위」 「번개사위」 「돌립사위」 「머리윗사위」 「잡은사위」 「모듬빨사위」 「左右치기」 「외칼 양칼 연풍대」 「어르는 사위」 「한발 들고 뿌리기」 「반절」 등이 있다.

그런데 海州劍舞는 伴奏音樂에 있어서 연불장단이 없어 처음부터「늦은 타령」에서 시작되고 움직임에 있어서 戰笠테에 한손을 대고 한손으로 춤을 추며 연풍대는 圓周上을 돌때 양손을 땅에 짚으며 칼춤 뿌리는 동작이 비교적 적고 칼을 가지고 춤을 추는 사위가 많다는 것이 특이하다.

재 현 지도자



양 소 운

-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기예능보유자
- 해주검무보존회 대표

해주검무 보존회 연혁

1983. 3 해주검무보존회 구성
1982. 10 인천학생무용합동발표회 특별출연(인천시민회관)
1984. 10 제물포예술제 무용제 출연(인천시민회관)
1984. 11 서울 대학로 공연
1985. 9 승공연합회 예술제 공연(수원시민회관)
1986. 10 제물포예술제 무용제 특별출연(인천시민회관)
1986. 인간문화재 명무전 출연(국립극장)
1987. 7 인천시민의날 시민위안공연 출연(인천시민회관)
1987. 10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수원실내체육관)
1988. 5 은울탈춤 중요무형문화재지정 10주년 기념 축하공연
(인천문화회관)
1988. 9 제1회 해주검무 발표회(인천미추홀 소극장)
1988. 10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공로상 수상
(전주실내체육관)
1989. 5 서울놀이마당 공연 참가
1989. 7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공로상 수상기념 전승공연
(인천배다리 예술극장)
1990. 3 국립국악원초청 전통무용 공연 참가(예술의 전당)
1990. 10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문화부 장관상 수상
(제주 한라체육관)
1991. 5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부장관상
수상 기념 전승공연
1991. 10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문화부 장관상 수상
(여수 진남체육관)

출연자 소개

【무용수】



차재숙



김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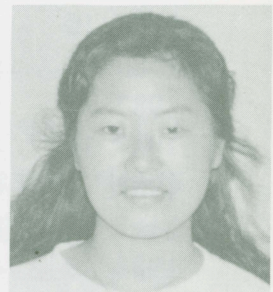
김은경



한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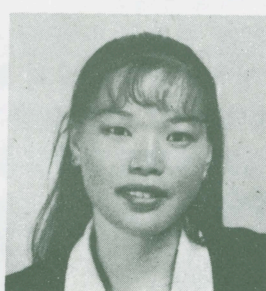
김혜영



전현주



노승희



장옥자



정미경



양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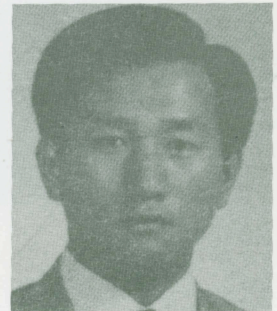
허명용

김재선

【악사】



장고/양소운



피리/김호석



복 / 차부회

피리/이용탁

대금/김진선

해금/김애라

해주검무연락처

인천직할시 중구 내동 5 번지 1/6

☎ (032) 72-4491